



축산업의 요모조모

축산정책 품질이 달라진다

농림부 축산국 조직 및 혁신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농림부 축산국(국장 박현출)에 따르면 국내외 정책동향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 정책 의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중요 민원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축산정책과에 '정책품질관리서브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축산물 수출관련 국내외 여건 변화를 파악하고, 수출업체 지원 등을 위해 축산정책과에 수출 업무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한편 수출 가능 축산물(중돈, 삼계탕 등) 발굴 및 수출 촉진, 국내 수출 업체 지원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축종별 생산 지원 업무를 축산경영과로 통합, 한우·양돈·양계·기타가축 지원업무를 '축산경영지원서브팀'으로 묶고, 생산자단체와의 협력 채널 유지 및 DDA, FTA 등에 따른 품목별 협상방안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도 축산경영과에서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축산물위생과는 이미 수립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의 원활하고 체계적 추진을 위해 '위생관리서브팀'을 설치 운영하고, 양돈관련 업무는 축산경영과로 이관시킬 계획이다.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축산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친환경

축산서브팀'을 운영, 축산환경 개선 기능을 강화하기로 할 계획이다.

주요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업무 수행 인력을 효율화하는 대신, 수출입 검역과 동물복지 등 기능을 강화하고, 방역제도·예산, 홍보 기능을 함께 묶어 '가축방역서브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즉, 축산정책과는 관리서브팀, 정책품질관리팀, 자금, 가축공제, 가축개량, 마사·재해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축산경영과는 경영지원서브팀(한우, 양돈, 양계, 신소득 가축), 낙농, 친환경축산서브팀을, 축산물위생과는 위생관리서브팀, 소비·홍보, 유통, 사료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가축방역과는 가축방역서브팀, 수의약무, 동물복지, 수출입검역을 맡게 된다.

축산신문 2006-1-11

전축종 사육마리수 감소

구립 12월 현재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사육마리수가 전분기 9월보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한 2005년 12월 가축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육우는 미산 쇠고기 수입 재

개에 따른 소값 불안 심리로 인한 출하 증가로 지난 9월보다 0.3% 줄어든 1백81만9천마리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12월보다는 9.2% 증가한 마리수다.

젖소는 원유생산 쿼터제 시행, 저능력우 도태 등으로 지난 9월보다 1.2%, 2004년 12월보다 3.6% 감소한 47만9천마리로 조사됐다.

돼지도 9월보다 0.3% 감소한 8백96만2천마리로 2004년 12월보다는 0.6% 증가했다. 닭은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우려 및 가격 하락으로 병아리 입식이 줄어 9월보다 14% 감소한 1억9백62만8천마리로 조사됐다. 그러나 2004년 12월보다는 증가했다.

■ 한육우

총마리수는 1백81만9천마리도 전분기보다 6천마리 줄었으나 전년 동기 보다는 15만3천마리 증가했다. 이 중 한우가 전분기보다 6천 마리 감소했고, 전년동기 보다는 16만 마리 늘었으며, 가임암소는 77만7천 마리로 전분기보다 8천 마리, 전년 동기 보다 7만2천 마리 증가했다.

사육가구 수는 19만2천호로 전분기보다 4백호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보다는 3천 여호 증가했다.

한우 농가수가 전분기보다 4백 여호 감소하고, 육우 농가 수는 비슷하다.

소규모 사육농가수가 5백 여호 감소하고, 중규모 농가 수는 1백 여호 증가했다. 호당 사육 마리 수는 전분기와 비슷하고, 전년 동기 보다는 0.7마리 늘었다.

■ 젖소

총 마리 수는 47만9천 마리로 전분기보다 6천 마리, 전년

동기 보다 1만8천마리 줄었다. 이 중 가임암소는 전분기보다 7천 마리, 전년 동기 보다 1만4천마리 감소했다.

사육 가구 수는 8천9백호로 전분기보다 3백호, 전년 동기 보다 7백호 줄었다. 이 가운데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사육 농가는 2백호, 중규모 사육농가는 1백호 감소, 소규모 사육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당마리 수는 53.7마리로 전분기보다 0.8마리, 전년 동기 보다 2마리 늘었다.

■ 돼지

총마리수는 8백96만2천마리로 전분기보다 3만1천마리 감소했으나 전년동기보다는 5만4천마리 증가했다. 이 중 모돈수는 96만6천마리로 전분기보다 1천마리, 전년 동기보다 3만1천 마리 증가했다.

사육가구 수는 1만2천3백호로 전분기보다 1백호 증가하고, 전년 동기 보다는 1천호 줄었다. 이 중 1천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가 1백여 호 증가했다.

호당마리 수는 7백29마리도 전분기보다 9마리 감소하고, 전년 동기 보다 58마리 증가했다.

■ 닭

총 마리 수는 1억9백62만8천 마리로 전분기보다 1천7백86만3천 마리 줄었으나, 전년 동기 보다는 2백89만2천 마리 증가했다. 이 중 산란계는 5천3백39만2천 마리로 전분기보다 3.0% 감소, 전년 동기 보다 3.8% 증가했으며, 육계는 5천42만4천 마리로 전분기보다 23.4% 감소, 전년 동기보다는 0.6% 늘었다.

사육 가구 수는 13만6천호로 전분기보다 5천호 감소한 반

면 전년 동기 보다 5천호 증가했다.

호당 마리 수는 8백7마리로 전분기보다 97마리, 전년동기보다 6마리 줄었다. 축산신문 2006-01-11

소 부루세라병 전국 농장 검사 실시

농림부, 지난해 발생 증가 따라 중장기 근절대책 수립나서 일정지역 및 부분검사로 전국의 소 부루세라병 감염실태를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있던 농림부가 올해 소 부루세라병 방역강화를 위해 전체 농장 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루세라병 발생 마리수는 8929마리로 전년 동기 2215마리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부루세라병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중장기 근절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전 농장에 대한 검사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그동안 가축시장 거래소에 대해 부루세라병 검사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소 부루세라병 방역을 강화해 왔다.

농림부는 전 농장 소 부루세라병 검사에 필요한 인력부족 문제 등이 해결되는 대로 소 부루세라병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06-01-13 수의축산

양계농가 정책자금 상환연장

농림부는 국내에 발생되지도 않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 및 오리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이는 가금축산물 소비위축으로 인해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과 가축방역관련경영안정자금의 상환을 1년 연기하는 것.

지원방법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지원된 자금을 1년 연장해 3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변경되며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출잔액의 10%이상을 상환해야만 한다는 조건이다.

한편 이에 앞서 국세청은 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양계농가(7천여명) 및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오리구이·치킨집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피해를 본 축산농가 및 음식점 등의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간 연장기로 한 바 있다.

2006-01-13 수의축산

올해 양돈자조금 106억4천만원 확정

2006년도 양돈자조금 사업계획과 예산이 공시됐다.

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될 자조금 사업은 총 106억4천만원(농가 거출금 55억5600만원, 정부 지원금 48억원, 이익잉여금 2억8400만원)의 자조금으로 운용된다.

이번 사업계획은 양돈자조금사업 기반구축과 양돈생산기반 조성, 국산 돼지고기 우수성 홍보를 사업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양돈 산물 소비촉진과 안정성 제고를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다.

자조금 집행 계획의 첫째는 소비 홍보로 예산의 약

76.1%(80억9900만원) 비율을 차지한다. 또다른 사업으로는 교육과 정보제공, 조사연구, 징수수수료 등이다. 소비홍보는 TV·라디오 광고, 이벤트 등이고, 소비홍보물, 홍보용 캐릭터를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포크페스티벌, 요리강습 등 소비촉진 행사도 이뤄질 계획이다.

교육과 정보제공은 거출 홍보물 제작 및 배부, 도축장 거출금 납입징수 홍보와 관리, 양돈인력 양성 등으로 이뤄진다. 또한 자조금 운용 효과를 분석하고 양돈 산업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에도 자조금이 운용된다.

충북, 닭 사육규모 20% 급감

AI발생 우려 병아리 입식 줄어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으로 닭고기 소비가 줄어들면서 충북도내 닭 사육규모가 3개월만에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4/4분기) 도내 닭 사육규모는 751만6천마리로 9월1일(3/4분기)에 비해 18.8% 감소했다.

이는 AI 발생 우려와 함께 닭고기 소비 위축, 가격 하락으로 병아리 입식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육우(13만4천마리)와 젖소(2만5천마리)도 3/4분기에 비해 각각 1.8%와 1.9% 감소했다.

특히 젖소는 우유생산 쿼터제와 농가 고령화에 따른 한·육우 사육 전환 등으로 2004년 12월과 비교할 때 사육 마릿수가 13.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돼지는 51만3천마리로 전분기보다 0.2% 증가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국내에는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닭고기를 익혀먹을 경우 인체에 무해한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를 위해 닭고기 소비 촉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의축산 2006-01-06

양축가 폐사축 방역관리 강화요청

농림부, 독수리 먹이주기 행사에 폐사축 이용 우려

농림부는 축산농가들에게 폐사한 가축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농림부는 문화재청에서 주관해 실시하고 있는 독수리 먹이주기행사(경기 파주, '05.12.18~'06.3.5)와 관련해 지난 1차 행사시 폐사한 가축을 독수리 먹이로 이용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불법 반출된 폐사축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확산이 우려된다는, 각 축산농가에서 폐사한 가축을 가축방역관의 지시없이 불법으로 반출하지 말 것을 적극 당부했다.

특히 농림부는 독수리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지인 동북아시아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매년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조류에 해당되므로 전염병의 병원체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더욱 철저한 방역을 요청했다.

수의축산신문 2006-01-13

농장 주인, 사슴에 밝혀 숨져

사슴농장 주인이 자신이 기르던 사슴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밖으로 나온 성난 엘크사슴을 향해 119구조대원들이 마취총을 쏘지만 제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농장 주인 김모 씨가 우리안에 들어가 먹이를 주다 이 사슴의 공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김씨가 우리에서 나오지 않아 가 보니 쓰러져 있었고 사슴이 주민들을 공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강원도 강릉시 모산봉 등산로 입구에서 불에 타고 있던 코란도 승합차에 차 주인 53살 심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가 심씨를 살해한 뒤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강원도 화천군 풍산리 호계 고개를 내려가던 육군 모부대 소속 군용트럭이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40미터 계곡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22살 이모 상병이 골절상을 입는 등 사병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서울시 쌍문동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나 2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안방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2005.11.06

셀레늄 사슴 사육 성공

셀레늄은 암 예방과 노화 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셀레늄을 먹여서 기른 사슴과 토끼가 강원도 양구에서 첫

선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지역의 한 셀레늄 토끼 사육장입니다.

일반 사료에 천연 셀레늄과 당귀, 육모초 등 10여 종류의 한약재를 섞어 만든 한방사료를 먹고 자란 셀레늄 토끼가, 최근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셀레늄 토끼가 좋은 반응을 보이자, 또 다시 셀레늄 사슴 시범사육에 나선 양구군. 지난해 예산지원을 받은 한 농가가 한방사료를 먹인지 3개월만에 셀레늄 사슴 사육에 성공했습니다.

불포화지방산 가운데 DHA성분 비율이 0.14%로, 일반 사슴보다 무려 배이상 증가했고, 셀레늄 함량도 27ppb나 더 늘었습니다.

2005-01-12 YTN 뉴스

사슴질병 방역관리 교육

사슴업계 최초로 사슴질병 방역순회교육이 실시됐다.

한국양록협회(회장 김수근)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수원 등 3개 권역을 돌며 양록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슴질병 방역관리 교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교육에는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방역 대책 △농용 생산관련 위생 대책 등이 포함돼 참석농가들의 방역의식 고취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